

주사용 약물과 HIV 위험성 - 약물 남용, 파트 3

주사용 마약은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사용하여 혈류로 주입하는 마약입니다.



마약 준비 및 주사 기구 또는 "마약 주사 기구 세트(works)"를 HIV 양성인 사람과 공유하면, 그 사람의 혈액이 바늘에 남아있거나 마약 용액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HIV를 몸으로 직접 주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용도로든 주사바늘이나 주사기를 함께 사용하면 HIV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마약에 취하게 되면 위험한 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HIV에 감염되거나 HIV를 전파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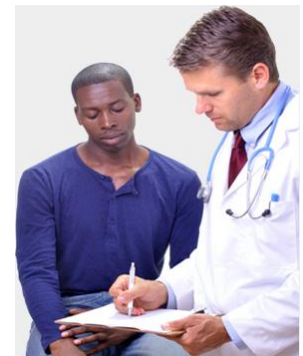


B형간염과 C형간염 역시 HIV 감염자 또는 HIV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미국의 경우 HIV 양성인 주사용 마약 사용자 10명 중 거의 8명이 C형간염에도 감염되어 있습니다.

C형간염은 간질환 및 간부전에 대한 위험이 3배가 되므로 HIV 감염자에게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사용 마약을 사용하는 HIV 양성자의 경우 C형간염의 감염 여부 역시 알아야 합니다.

주사용 마약 사용을 중단하면 HIV 감염 또는 전파 확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의료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주사용 마약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멸균 주사바늘과 마약 주사 기구 세트만 사용하십시오. 주사바늘이나 마약 주사 기구 세트를 공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HIV/AIDS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공중 보건국, 의료제공자 및 공공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ext is from HIV/AIDS sources from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adapted by HealthReach and Healthy Roads Media. This project has been funded in whole or in part with Federal funds by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award number HHSN2762015000111 awarded to the Center for Public Service Communications. Images from iStock.com.